

# Field Voice >>>

## 전기요금 인상

올 하반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전체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며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될 것을 예고했다.

사실 전기요금은 원가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전이 매번 적자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1조79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어섰다.

전기요금 구조에는 많은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원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야전력 요금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도 원가 이하다.

물론 한번에 많은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한전과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을 따듯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 여름철 전력수요 비상

올 여름 최대전력이 7000만kW를 넘어서 7070만kW에 이를 것인 전망이 나왔다. 예비율은 최대전력의 6.5% 수준인 460만kW로 예상되고 있다.

전력의 무분별한 수요로 인해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600만kW선이 무너져버렸다.

최대전력은 국내에 건설된 모든 발전소를 최대로 가동했을 때를 말한다. 7070만kW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가동할 발전소가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10.6%(271만kW) 증가한 2841만kW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는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삼척의 경우 집도 절도 없는 산 속에 수많은 송전탑이 비늘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도로도 좋고 장학금도 좋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보상이 도로와 장학금으로 해결될까. 이제는 수도권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

## 한전 재통합

이달 초 정부와 한국전력의 힘겨루기 싸움이 일단락 될 조짐이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대한 내부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달 말로 미뤄졌다.

양측은 팽팽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사실이야 어떻든 현재 한전과 정부의 싸움이 초미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싸고 품질좋은 전력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한전과 정부의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 및 발전사의 통합 결정을 놓고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력 소비의 주체인 국민을 외면한 채 힘겨루기 싸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외면과 반발은 당연지사다.